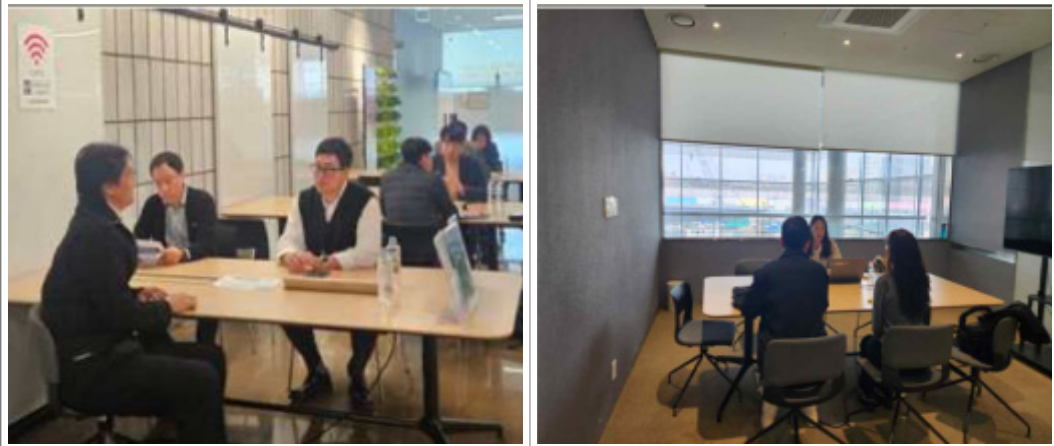


제2막: 세무를 넘어 금융까지, 원스톱 지원

이날 행사가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민관 협업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이 손을 잡았습니다. 강의장 밖 로비에는 1:1 상담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능기부 세무사들은 개별 기업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분석해 주었고, 신한은행 전문가는 스타트업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상담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겁부터 났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미리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니 든든한 파트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분 정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2부 - 1:1 기업 맞춤형 세무·재무 컨설팅



에필로그: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로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세무 컨설팅’이라는 방패를 쥐여주는 것. 그래서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강남구가 지향하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규제 중심의 행정이 아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 행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강남구를 든든하게 지킬 것입니다.